

경북행복

BRIEF

제24호 2018. 12. 1.

법 인 명 칭 (재)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재)경북행복재단 편찬부
주 소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T E L 054-710-8814
홈 페이지 www.ghf.or.kr
연 구 책 임 권용신(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엄태영(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병오(하인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점의 경북형 도시재생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사업은 대체로 낙후된 도시의 주민들이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지역사회 내로 유입시켜 궁극적으로는 도시가 활력을 갖도록 하는 것임.
- 특히 도시재생지역 내의 빈곤, 실업,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공동체 해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 최근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접근에 치우쳐 있고, 비물리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강혜규 외, 2017).
 - 이에 비물리적 도시재생사업의 주요한 접근방식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복지의 내용을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하는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음.
 - 그럼에도 지금까지 복지적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정의나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복지관점 도시재생의 개념과 관련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관련 법 및 사업에서 다루지고 있는 복지관점 도시재생의 내용들을 모색하였음.
-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복지관점의 경북형 도시재생 모델 및 운영체계 등을 제시하였음.

II. 도시재생 관련 정책

- 2000년대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물리적 재생을 벗어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교육, 문화 및 일자리 등을 포괄하고,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하며, 일반법적인 도시재생 관련 법제정이 필요함.
-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문화, 사회, 환경 및 경제 등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관련 정부부처별 사업수행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체계마련이 요구됨. 특히 복지관점의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 부서와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가 공식적인 구조 내에서 협업 기회 마련이 필요함.
- 정부주도형 도시재생 계획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의 패러다임이 법과 정책에서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동기부여 방식과 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이 필요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관련자들의 현안을 조정하는 기능에 국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도시재생 관련 이슈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내용 속에 도시재생 관련 기획력과 사업수행능력 관련 역량강화 영역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Ⅲ. 도시재생 뉴딜과 복지사업의 실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내용

[표 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복지관점 사업내용

목표	세부내용
주거복지 실현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향상
도시경쟁력 향상	공유시설 설립,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 마련
사회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관련 사업, 공동체 활동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창출, 지역자산 활용 일자리창출, 지역공방, 취·창업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형성

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복지관점의 사업유형 분석을 위해 2017년도에 선정된 전국의 68곳의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복지관점의 도시재생 사업내용을 분석한 내용임.

- 주거복지 :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접근성향상 사업임.
- 도시경쟁력 향상 :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역에 많은 공유시설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목적과 형태가 다양한 공유시설의 내용이 사업계획서 내에서 발견되고 있음.
- 사회통합 :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설치와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관련사업 및 각종 공동체 활동이 있음.
- 일자리창출 : 일자리창출 사업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과 지역자산 활용 일자리창출, 지역공방, 취·창업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형성 등 총 5개의 사업내용이 계획되어 있음.

IV. 복지관점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 심층조사

[표 2]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개념정의의 세부내용

항목	세부내용	개념구성
추진주체	지역사회 구성원 스스로, 주민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체
추진방향	인본의 가치, 사업의 내실화와 질적 측면	지역주민 중심의 질 높은 사업
추진방법	지역복지사업, 보편적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다른 제도나 정책과의 협력방식, 전문적·비전문적 활동	지역복지사업,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과 다양한 제도들과의 협업
궁극적 결과	지역의 복지역량강화, 유대감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삶의 질 증진, 지역공동체 회복, 살기 좋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지역공동체가 회복된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개념 정의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이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 중심의 질 높은 지역복지사업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복지역량이 강화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된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것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넘어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동반 성장 도모

출처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 〉

[표 3] 지역복지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분야

구분	내용	적용 예시
주거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및 공유주택 공급 • 접근성 향상 (노인·장애인 보행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가능(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마을 만들기 저장강박증 주민을 위한 정리수납서비스 제공 등)
도시경쟁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시설(공간) 설립 : 카페, 도서관, 유아돌봄, 평생학습, 공동육아 등 •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공간 등을 활용해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평생학습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 경로당 기능 개선을 통한 소규모 실버복지관 운영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서비스 제공 • 노후주택 개보수 • 지역화폐, 공동텃밭 • 지역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주도의 마을미디어(신문, 라디오, 방송 등) 운영 • 공동체역량 강화 및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인사 나눔 캠페인 전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창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사업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2018) 등의 기준을 근거로 재구성함.

V.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복지 적용사례

(1) 일본 고베

일본 복지관점 도시재생 사례 '고베시 마노지구 마을 만들기'

■ 주민 주도를 넘어 민·관 협치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도시화, 공업화로 인한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이 일어났음. 이를 기반으로 점차 인구 고령화 문제와 같은 복지 문제나 노후 주택 개선 문제 등으로 해결 바람이 확산돼, 주민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마을 만들기'로 발전하게 됐음. 그리고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발생한 후 붕괴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 결국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 있었음.



출처 : 개인블로그(<https://blog.naver.com/8910a/220965729914>)

〈 고베 대지진 도심 및 주택가 피해 모습 〉



출처 : 국토연구원(2008) 내부 자료

〈 마노지구 마을 만들기 추진회 회관 전경 〉

■ 사업의 성과

- 거시적인 도시계획과 미시적인 생활계획의 결합
- 공업화, 도시화로 깨졌던 공동체의 회복

(2)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 도시재생 사례 ‘발리문 재생(Ballymun Regeneration)’

■ 대규모 개발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증진

- 도시 빈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아파트가 지역사회 내에서 알콜중독, 약물중독, 빈곤문화, 낙인문제 등으로 타 지역으로부터 고립됐음. 공공임대아파트를 해체해 통합형 주거지로 재개발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지역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타 지역 주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음. 이 사례는 도시재생에서 주민 주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설립하고, 임대아파트 주민과 일반 주민이 함께 지역 사회 통합을 증진하며,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낸 사례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재생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음.



출처 : 고양신문(www.mygoyang.com), 2013년 11월 21일자

〈 발리문 도시재생사업 후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변모된 주택가 〉

■ 사업의 성과

- 주민 주도의 커뮤니티 센터 도입
- 지역사회 통합 증진
- 빈곤계층 아동·청소년의 변화
- 사회적 재생(Social Regeneration)

(3)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 국내 마을공동체변화지향 복지관 지원사업 : 중간조직으로서 지역복지 기관의 가능성 확인

- 도시재생 관점의 지역복지 실천 사례로서 일본의 마을 만들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서울지역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개인을 돕기 위한 단순 복지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자 한 활동이었음.
- 지역복지 중심 기관을 기반으로 마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내거나 마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사례로 볼 수 있음. 국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가장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개별 서비스 위주의 지역복지 기관이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재정립하면서 마을 중심의 도시재생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음.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2016).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성과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연구 초기 추진 과정 〉

(4) 경기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도시재생 경험'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도시재생 활동 :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지역복지와 도시재생 융합의 가능성 확인
 - 심각한 빈곤 문화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서 공간 환경 변화를 통한 공간 실천이라는 방식의 도시재생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와 도시재생의 접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음.
 -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알콜중독 주민, 노인, 장애인 등을 공간 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동에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 계층이 배제되지 않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나 그들의 의사가 옹호되거나 대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음.



출처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haanwc.or.kr)

〈 음주 및 도박으로 멍들어 있던 하안3단지 병아리공원 〉



〈 방치된 공간에 정원과 벽화를 통한 마을변화의 상징성 부여 〉



〈 주민간담회, 주민공청회, 주민시공참여 등 주민의 주도적 참여 〉

■ 사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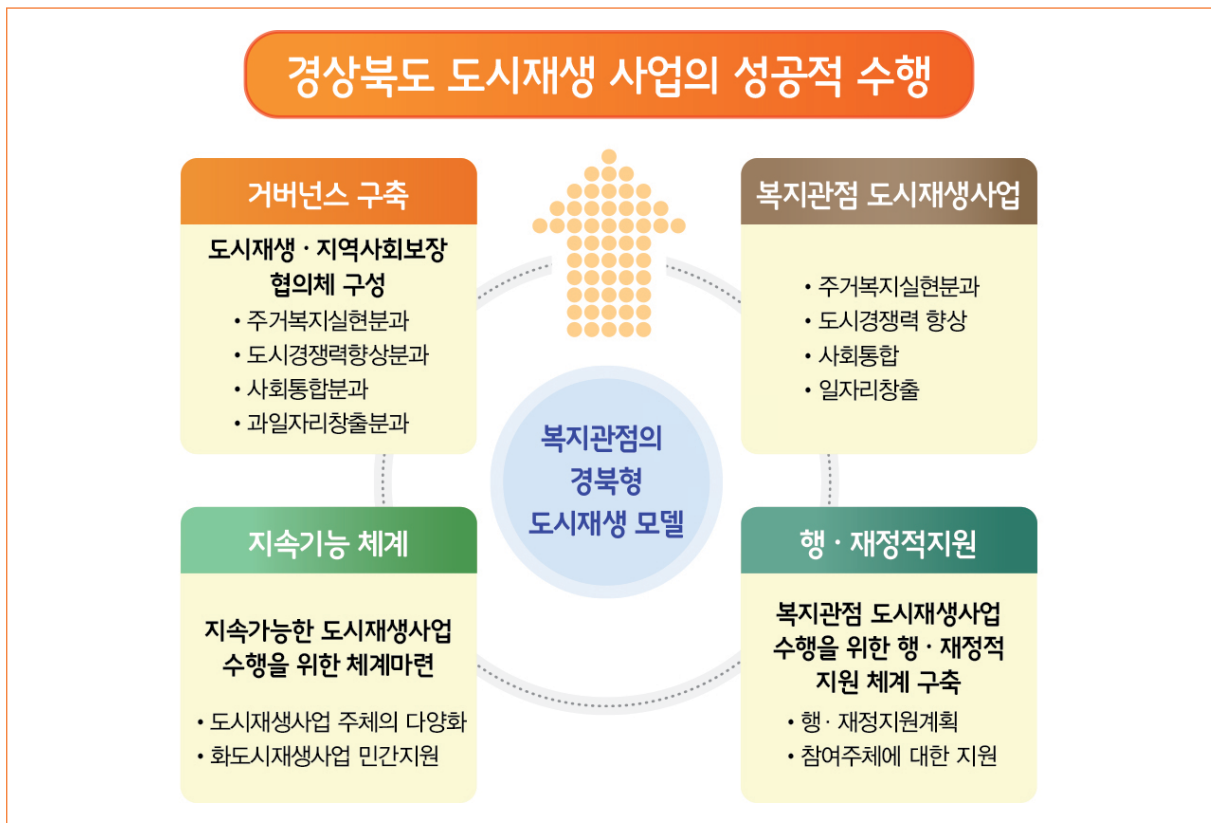
- 주민 역량강화(Empowerment)
- 사회적 공간의 변화 필요성 인식
- 주민 조직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
- 기록 및 공유를 통한 마을 변화의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을방송단 '왓지지컬' 영상 기록 및 공유
 - 마을해설가 활동을 통한 '사람박물관' 운영

(5) 사례를 통해 본 도시재생 관점의 지역복지 실천의 시사점

- ①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의 활동 : 주민참여 및 주민중심의 공동체 활동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
- ②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환경의 통합적 활동 : 도시재생의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를 의미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도시재생 활동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③ 지역복지와 도시재생의 융합 가능성 확인 :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지역복지기관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지역복지와 도시재생의 융합 가능성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VI. 복지관점의 경북형 도시재생 모델 및 운영체계 개발

- 복지관점의 경북형 도시재생 모델은 주민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체적 참여를 통해 주민중심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접근과 기존의 복지 관련 제도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형성을 목적으로 함. 특히 복지관점의 경북형 도시재생 모델은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접근방식이며, 하나의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지원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이러한 복지관점의 경북형 도시재생 모델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우선 복지관점 도시재생 모델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같은 도시재생사업 내에서의 실질적인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공공영역의 예산지원 등이 종료된 후 지역사회 내에서 사업의 성과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체계, 마지막으로 복지관점의 경북형 도시재생 모델과 관련한 경상북도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볼 수 있음.
- 복지관점의 경북형 도시재생 모델은 도시재생사업 수행 전문가와 활동가에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역 내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복지 기관이나 실천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모델임. 그리고 역으로 복지실천가에게도 도시재생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복지관점의 경북형 도시재생 모델 〉

Ⅶ. 정책제언

(1) 지역 내 복지기관 및 복지실천가와 소통 의무화 : ‘도시재생·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도시재생의 개념이 주민의 주도적 참여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지역복지와 개념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동가들은 지역 내 복지기관 또는 복지실천가와 소통하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가져야 함.
- 소통을 강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재생·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별도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기관이나 복지 관련 실무자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 경북 내 모든 시·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의무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협의체 구성에 도시재생 활동가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장치 마련

- 지역 내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지역복지 관련 기관과 사업 연계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발굴된 주민 리더, 주민 모임, 주민 공동체가 사업 종료 후에도 잘 유지되어야 할 것임.
- 도시재생을 통해 탄생한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주민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고 학습도 가능한 공유공간부터 실제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가능한 공간까지 다양한 공간이 탄생할 것임.
- 경북 도시재생·복지지원센터 설치 필요
 -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이 경북 지역 내에 활발하게 수행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함.
-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지원조례 마련
 - 실질적인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각종 행·재정 지원이 필수적이고, 복지관점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각종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3) 정부의 '혁신 읍·면·동'과의 연계 장치 마련

-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는 도시재생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간 확보 전략 수립과 연계될 수 있음.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가 확충될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특히 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경우 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따라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서비스 공간 확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
- 주민자치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중심의 공간 개선, 특성화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기능 개선'은 도시재생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매우 잘 스며드는 내용임. 이에 도시재생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사업이 선정되지만 실제로 진행 단위는 읍·면·동 단위로 더 좁게는 마을 단위로 추진되고 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음. 도시재생 활동가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 보장협의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통하고 논의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4) 도시 활력을 위한 외부조직과의 연계

- 대학과 기업의 참여유도
 -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의 확장 과정에서 대학과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대학과 기업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전문성은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수행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들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적극 활용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유입이 절실함. 이와 관련하여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수행과정에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 특히 돌봄, 교육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도시청년들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유입하고,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겠음. 이를 위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주환경과 기초생활 인프라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재생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의 도시청년파견인력 활용 관련 협업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5) 복지관점의 도시재생 인식개선 및 교육 추진

■ 도시재생 관련 인식개선

-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올바른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요구됨.

■ 주민대상 교육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복지관점 도시재생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우선되어야 함. 특히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사항과 복지욕구나 사회문제 발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요구됨.

■ 복지관점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역주민이지만,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자문하며 안정적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복지관점 도시재생 전문가는 필수적 사항임.

(6) 중장기 계획 내 복지관점 도시재생 개념 포함

-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도시재생 관련 중장기 계획과 복지 관련 중장기 계획 내에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 우선 도시재생 관련 중장기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에 복지관점 도시재생의 개념과 관련 사업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복지와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에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면서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별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부터는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경상북도의 자체사업만을 기획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점 도시재생개념 적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7)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연구 확대

-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개념정의나 우수사례(Best Practice) 수집 등이 필요하므로,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관련 지식과 기술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음.

(8) 기존의 관련제도 활용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용

- 도시재생지역은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 관련 욕구와 문제가 다양한 상황이므로 이의 충족 및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거복지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연계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되는 각종 공유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것이 안정화될 때까지 배우처로 대변되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활용하는 것임.

■ 경북 브랜드일자리경진대회 접목

- 경상북도는 매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영역과 사회적기업 육성 영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일자리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북 브랜드일자리경진대회 내 하나의 유형으로 도시재생사업 일자리를 설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내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겠음. 특히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브랜드일자리 경진대회 내에서의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관련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음.

(9) 유휴공간에 대한 통합적 관리

- 복지관점 도시재생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공유 공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북도내 펼쳐져 있는 많은 유휴공간에 대한 파악과 관리과정이 필요함. 특히 단편적인 유휴공간에 대한 접근에서 탈피하여 보다 장기적이면서 통합적인 계획 과정 속에 복지 관련 공유 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경상북도 유휴공간관리체계 구축 및 적극적 활용계획 수립이 요구됨.

참고문헌

강혜규 · 엄태영 · 류진아(2017).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유형 및 내용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7(7), pp.31~43.

관계부처합동(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2017).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서울시복지재단(2013). 복지관 마을지향으로 일하기(증보판).

서울시복지재단(2016).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사업성과 연구.

<http://www.city.go.kr>(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www.haanwc.or.kr>(하안종합사회복지관)

<http://www.mygoyang.com>(고양신문)

편집위원 류승완, 김동화, 정상기.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